

# 광주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또 사고... 노후시설 '조마조마' 한데 10년 멈춘 모노레일 재운행 추진 '불안불안'

### 조임장지 풀려 2명 추락 부상... 10명 1시간 동안 '덜덜' 모노레일 시설 부식 등 문제 속 재가동 모색 '안전불감'

광주시 동구 무등산 지산유원지 관광리프트 추락 사고가 또 발생했다. 특히 지난 5·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조임장지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장비 불량 뿐 아니라 부실한 안전 점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해당 리프트 운영업체가 추진중인 '지산유원지 관광열차' 운행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한 안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안전사고...불안한 지산유원지 리프트=13일 광주동부경찰서와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지산유원지 관광리프트에서 승객 최모(54·권모(여·48)씨 부부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최씨 등은 리프트 아래에 설치된 안전그물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또 이 사고로 리프트가 멈춰 다른 승객 10명이 공중에 고립됐다. 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최씨 등은 호텔부동산과 승강장에서 정상부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전체 745m 구간 중 5분의 4지점에 이르러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최씨 등이 타고 있던 리프트와 외이어를 연결하는 '압식기'라는 조임 장치 가 풀리면서 리프트가 뒤로 밀려 뒤따르던 빈 리프트와 충돌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 바가 뒤로 젖혀지면서 승객 두 명이 아래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책임자들을 상대로 장비 불량 및 매뉴얼에 따른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1978년 첫 운영을 시작한 지산유원지 리프트가 시설노후화로 해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업체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3월에 30대 여성이 추락해 다쳤으며, 지난 2012년 9월에는 리프트가 장비결함으로 멈춰서면서 승객 19명이 2시간 가까이 하공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정상에서 내려오던 리프트가 앞서가던 리프트를 들이받으면서 70대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어, 관리 책임자 3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정상부 모노레일 관광열차 재운행하나=㈜나경인터내셔널은 지산유원지 정상부에 있는 관광열차(모노레일) 재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된 기초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구에 따르면 ㈜나경인터내셔널은 지난해부터 지산유원지 정상부에 있는 열차를 교체하는 등 모노레일을 재운영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가 지상에서 최대 5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기초 선로의 전면 교체가 아닌 일부 개보수 공사만 진행한 채 재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 9월 첫 운영을 시작한 모노레일은 지난 2005년 3월 정식으로 폐업 신고된 후 사실상 10년째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기초 시설물 접합 부분 등에서 부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의 안전검사를 진행했던 한국기계연구원 안전성시험연구소도 '기초부가 부식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합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1차 불합격 판정 이후 일부 도색 작업 등을 다시 진행, 지난 11월 초 2차 검사를 의뢰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보는 ㈜나경인터내셔널 측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포 탈출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자락 지산유원지에서 장비결함으로 멈춰선 리프트에 고립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리프트에서 승객 2명이 추락했으며, 10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 '뇌사 여중업원' 끝내 숨져

### 경찰, 폭행·성매매 의혹 수사 이번주 중간발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수의 한 유류주점 여중업원(광주일보 1일자 6면)이 끝내 숨졌다. 쓰러진 지 22일만이다.

경찰은 업주 폭행과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숨진 여중업원의 주검을 부검하는 한편, 이번 주 중에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를 중간발표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여수 유류주점 여중업원 A씨(34)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43분께 자신이 일하는 유류주점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입과 코에 구토물이 가득했으며 호흡과 맥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A씨의 동료 여중업원들과 여성단체는 주점의 실소유주인 박모(여·42)씨의 폭행 때문에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11

시30분께부터 자정 이후까지 박씨가 A씨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씨가 고용을 할 때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성매매(2차)로 갈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역 경찰과 공무원 등이 성매매수사에 포함됐으며 명단과 직업, 성관계 일시·장소, 받은 금액, 전화번호, 신체 특징 등이 담긴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여수 유류주점 여중업원 A씨(34)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A씨에 대해 A씨의 동료 여중업원들과 여성단체는 주점의 실소유주인 박모(여·42)씨의 폭행 때문에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11

시30분께부터 자정 이후까지 박씨가 A씨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씨가 고용을 할 때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성매매(2차)로 갈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역 경찰과 공무원 등이 성매매수사에 포함됐으며 명단과 직업, 성관계 일시·장소, 받은 금액, 전화번호, 신체 특징 등이 담긴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여수 유류주점 여중업원 A씨(34)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 한상균 위원장 구속...경찰,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받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동계와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하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 철도시설 보수공사 중

### 기관차 치어 50대 사망

순천에서 철도시설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어 숨졌다.

13일 낮 12시55분께 순천시 덕월동의 철도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이모(여·59)씨가 보성에서 순천역을 향해

가던 기관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이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선로 주변 축대벽과 배수로를 보수하는 공사 현장에서 열차 통행을 감시하는 신호수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수도관 파열·변압기 고장... 휴일 잇단 사고 시민 큰 불편

휴일인 13일 광주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고 변압기가 고장나는 등 시설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수도물이 누수돼 일대가 통제되고 일부 공장에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

날 오전 7시께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 내 한 공장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인근 도로에 약 3m가량 균열이 생겨 수도물이 도로로 솟구치면서 주변 일부 도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또 주변 공장 20여 곳 중 저수조 물탱크가 없는 4개 공장에 수압이 약해지거나 일

시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아 조업에 지장을 받았다. 저지대에 위치한 공장에는 수도물이 흘러넘쳐 소방당국 등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수압을 못 이겨 부분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새벽 2시14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아파트 7개동 1230여 가구가 새벽 시간대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추위에 떨었다.

한국전력은 30분가량 지난 새벽 2시40분께 4개동의 전기 공급을 재개하고, 오전 6시 25분 나머지 3개동의 복구를 완료했다. 한편 측은 아파트 소유의 변압기 설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를 지연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여자자동차생과 다투던 소방공무원, 말리는 고교생 흉기 위협



○...술에 취해 초등 학교 동창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고교학생에게 흉기를 보여준 4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서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지역소방공무원 A(48)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아파트 인근 은행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여·48)씨와

다투다가 자신을 말리는 고등학생 C(17)군에게 흉기를 보여준 혐의(특수협박).

○...A씨는 경찰에서 "집에 있던 칼을 갈려고 들고 나왔다가 동창과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칼이 빠진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C군은 "폭행당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말리려는데 흉기를 들고 '저리 가라'고 위협을 했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b>7층</b> <b>상가건물 매매</b>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b>(7층) 건물 (사우나 건물)</b></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 용 7억)</p> <p><b>매가 16억</b></p> <p><b>010-6834-4800</b></p>	<p><b>신축 상가원룸 매매</b>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b>(4층) 신축원룸</b></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b>4면 올 대리석 시공</b> 신축 원룸 / 내부 개조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b>매가 6억 8천만</b></p> <p><b>010-6832-9700</b></p>	<p><b>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b>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p> <p>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역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역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p> <p>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역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p> <p>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을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p> <p>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p> <p>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p> <p>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p> <p>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월520만) → 매가 6억8천만</p> <p>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월1,020만) → 매가 16억</p> <p><b>010-6832-9700</b></p>	<p><b>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b></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b>최저가 19억8천만</b></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b>최저가 11억8천만</b></p> <p>3. 북구 두암동 (토 44평,건 166평) ※ 두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1층(상가)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5천 → <b>최저가 2억5천만</b></p> <p>4. 서구 마복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b>최저가 6억9천</b></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b>최저가 5억8천만</b></p> <p>※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p> <p><b>010-7384-7800 / 010-6670-9800</b></p>	<p><b>경매교육</b></p> <p><b>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b></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